

## 응급처치

소생 의학 연구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심정지의 60% 이상이 집 안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며, 90% 이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될 뿐만 아니라, 50%가 환자의 가족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목격자에 의해 심폐 소생술(CPR)이 시행된 경우는 단 5.8%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심정지 상태에서 10분 이상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뇌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심폐 소생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.

## 심폐 소생술(CPR) 이란

이름과 달리 심장이나 폐를 소생하는 방법이 아닌, 쇼크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심장의 기능을 시술자가 대신하여 뇌에 혈액을 공급해 뇌사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
### 심폐소생술(CPR) 순서

#### 01 깨우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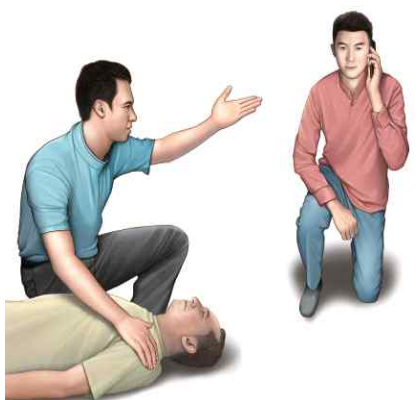
어깨를 두드리고  
“여보세요?”  
“괜찮으세요?”  
라고 물으며  
**의식 확인**한다.



#### 02 알리고

특정인을 지목해  
119에 신고하며  
심장충격기(AED)  
을 요청한다.

\*주변에 아무도  
없다면 직접  
119에 신고한다.



#### 03 누르고

CPR 시행



#### 04

심장충격기  
(AED) 사용



## 가슴 압박 방법

### 압박 위치

- 가슴뼈의 아래쪽 1/2 중앙

### 압박 속도 및 횟수

- 분당 100~120회 속도로 시행한다.
- 가슴 압박 이후 심장에 혈액이 채워지도록 충분히 이완 시킨다.  
(압박 시간과 이완 시간은 1:1)
- 가슴 압박은 강하고, 빠르게, 중단없이 시행한다.

### 압박 깊이

- 성인 5cm, 소아 4cm, 1세 미만의 영아 4cm

### 구조자 자세

- 환자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구조자의 어깨가 환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체중을 실어서 시행한다.
- 구조자를 교대할 수 있다면 2분마다 교대하는 것이 좋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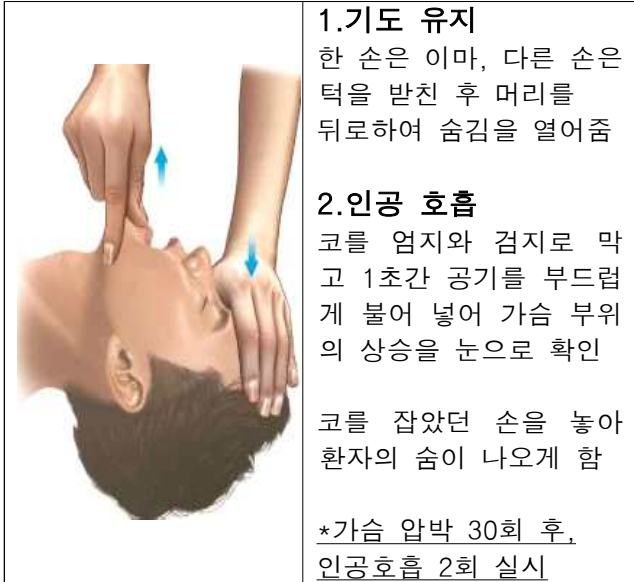
\*효과적인 가슴 압박을 위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환자를 눕힌 상태로 시행합니다.

\*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한다.

## 인공 호흡

2015년도 심폐 소생술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인공호흡 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일반인 구조자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 시행한다.

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다.



## 심장 충격기(AED)

### ①준비 가능 상태 확인하기

:작동 가능 표시 램프의 점등 확인

### ②전원 켜기

:전원 ON, 음성 안내 따르기

### ③패드 부착하기

:부착 후, 전극을 AED에 연결

#### 성인 패드 부착위치



#### 유아 패드 부착 위치



### ④자동 심장 리듬 분석

:AED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으로 분석하기

때문에 환자로부터 떨어져 대기하기

### ⑤전기 충격

:AED 안내에 따라 shock 버튼 누르기

\*아무도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 확인하기

### ⑥즉시 심폐 소생술 재시행

:AED는 2분마다 심전도 분석하여 심장충격이 필요 여부를 알려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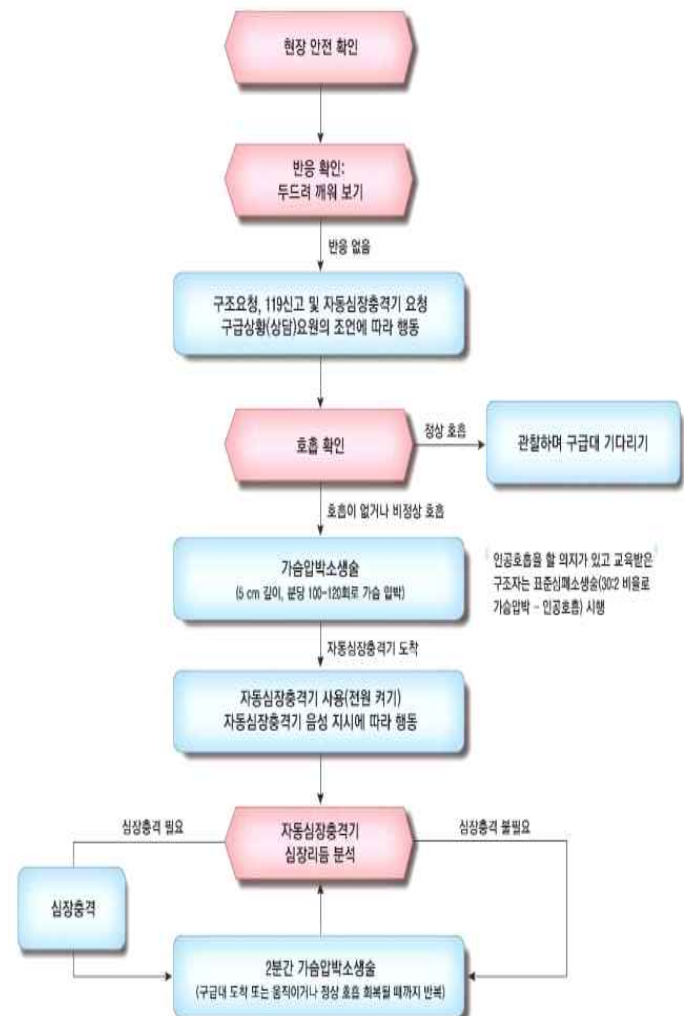
\*\*AED가 전기 충격이 불필요하다고 알려 주는

경우에는 **즉시 심폐 소생술 재시행**

ex)

무수축(Asystole) : 심장의 전기적, 기계적 활동이 없어 심실수축이 없는 상태

무맥성 전기활동(PEA) : 심장의 전기적 신호는 있으나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



### [출처]

고등학교 보건, 천재 교과서 2015  
한국 심폐소생협회